

정부 지원 적고 민간 참여 꺼려

영산강 수질개선 '막막'

광주천 하수관 정비 재원 3조 마련 난감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방침에 따라 광주시가 광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시 전역의 하수관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시비 부담이 크데다 불경기로 인해 민간기업들마저 참여를 꺼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광주천 수질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6ppm 이하, TP(총인·물 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1.62ppm 이하로 맞추기 위해 빗물과 오수가 함께 배출되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있으며, 시 전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데는 모두 3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데 민간자본 1천222억 원을 투자하는 BTL 방식(Built-Transfer-Lease,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고,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참여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자가 없어 최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켰다.

또 서구 화정동, 남구 주월·진월·봉선·방림동 일부 등 하수관거 106km를 분류식으로 신설하는 데 996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임대료를 둘러싸고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상을 거쳐 내년 초에나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BTL 방식을 적용할 경우 완공 후 20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추후 시의 재정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시는 이 같은 부담을 우려해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영산강 등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그것에 소요되는 상당부분의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4대 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합쳐 불과 5천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나 임대료 문제 등으로 민간기업이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국민 보조가 30%에 불과해 시의 부담이 크데다 불경기로 인해 민간기업들의 참여마저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우선 북구 문흥·오치·용봉·우산·매곡·삼각·일곡·각화·두암동 일부 등 하수관거 148km를 교체하는

시가 하수관거 일제 정비에 나선 이유는 매일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70만 여의 광주천 물 BOD가 7~9ppm으로, 영산강 수질악화의 근원 원인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연극으로 만난 안중근 2009년은 안중근(1879~1910) 의사의 거거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안 의사의 애국혼을 기리기 위해 JS씨어터(대표 표재순)가 제작하고 광주일보사와 광주연극협회가 공동주최 한 연극 '대한국인 안중근' 공연이 1천여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에는 안의사 역의 최수준을 비롯, 정혜선 등 중견 배우들이 참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

단독국회 강행 vs 접거농성 돌입

여야 실력대결에 극한 대처 재연 우려

한나라당이 23일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절차에 들어간 데 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 접거농성에 돌입해 또 다시 국회 대치사태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이종걸 유선호 주승용 강기정 김재

균 조정식 김영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중앙홀을 기습 점거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조정식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권 및 한나라당의 독주와 'MB악법'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먼저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접거농성은 강경파 초·재선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당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임시국회 개최 전 등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연말-연초와 2월 국회에

이어 여야가 국회 내에서 실력대결을 불사하는 극한 대치상황이 재연될 것 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독국회 소집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을 지켜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이강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내 첫 존엄사 시행

식물인간 할머니 호흡기 떼어내... 호흡은 유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3일 오전 10시21분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공식 집행했다.

<관련 기사 3면>
이날 존엄사는 호흡기내과 주치의 박무석 교수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 온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공호흡기를 떼는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난 1년4개월 만이고, 지난해 11월28일 1심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받아들인 지

7개월여만이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이후에도 이날 밤까지 안정적으로 자발 호흡을 해 장시간 생명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김 할머니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환자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여름 휴가 패키지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9

광주 도심에 생태문화길 만든다

광주천·무등산·문화전당 등 연계 도보 탐방

도심을 가로지르며, 생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길이 광주에 조성된다. 생태문화길은 극락강, 광주천, 무등산, 가사문화권, 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주요 거점으로 하며, 이를 거점으로 연계하게 된다.

광주시는 23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문화 희망길 조성 포럼'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최근 '광주시

생태 탐방·문화체험벨트 조성방안' 용역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 올해 말까지 노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조성민 호남대학교수는 "생태와 문화, 역사 등 광주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시민들이 걸으며 이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주요 등산로와 도로망, 하천, 탐방자원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시민들의 도보 접근이 가능한 노선을 도출

해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생태문화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생태탐방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심 내 생태문화길 조성에 나선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고, 개발이나 계획이 예정돼 있어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도심 생태와 문화로 엮어내자는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거리로 걷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함께 광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천·무등산·문화전당 등 연계 도보 탐방

생태 탐방·문화체험벨트 조성방안

광주일보